



비유컨대 19세기 말 근대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더 이상 옛 중화질서의 조선 유학자들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근대 교육을 받은 근대적 엘리트가 주도세력이 된 후에 비로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이 그러한 전환기이고 세대교체의 시기인 것이다. 서당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퇴출되고 근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세력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처럼, 근대 아날로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디지털 지식과 문화가 몸으로 체화된 젊은 세대에게 나라를 이끄는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데미스 허서비스 등의 놀랄 만큼 젊은 연령과 도전적인 성장배경 등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들이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도 벌써 익숙한 인터넷 기반의 경제에서 폭발한 디지털 혁명이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우리가 사는 시스템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혁명을 의미한다.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인공지능이 바로 그 패러다임을 표상하고 있다.

대저 이러한 전환기는 선대보다 후대가 나라를 이끄는 경쟁력이 훨씬 뛰어난 역사상 몇 안되는 시기인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 그리고 지금이 또 한 번의 시기이다.

선대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는 반면 후대는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제 솔직히 세상의 변화를 더 잘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혁명 세대의 젊은이들이지 통제된 조직과 근대적 상식에 익숙한 현대의 서당세대는 아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쓸어지는 새로운 기계와 연결과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선도하기에는 아무리 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필자를 포함한 나이 든 세대는 이미 젊은 세대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전면으로 나서야 하는 진짜 이유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